

한국표준협회

건강, 환경, 사회를 생각하는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수여식 개최

- 서울우유 · 대상 · 애경산업 등 8개 기업 및 단체의 12개 품목 인증 획득
- 식품, 생활용품, 건축자재 등 소비스타일이 로하스로 이동

한국표준협회(회장 최갑홍)는 12월 19일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는 서울우유, 대상, 애경산업 등 총 8개 기업 및 단체의 12개 품목이 최종적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은 2000년 미국의 내추럴마켓팅연구소에서 최초로 제시한 로하스(LOHAS,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인증 서비스로, 한국표준협회가 2006년부터 매년 4회에 걸쳐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에 인증을 수여해 왔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서울우유 슈레드 피자치즈, 가공치즈, 유기농치즈 등 3품목 ▲대상 맛선생 밀치가쓰오, 맛선생 오색사연 등 2품목 ▲애경산업 아이린, 아이린자연초(섭유유연제) 등 2품목 ▲한비프러그 엘리가드포트(친환경 농자재) ▲조인 칸베추리얼 스키엑스티 이엑스티파일(건축자재) ▲에그샵 명품영양란 ▲세라젬 부진자파향균 온열매트 등 총 12개 품목이 선정되었다.

서울우유, 대상, 애경산업, 조인은 이미 로하스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계 선도 기업들로 지속적인 로하스 제품 개발과 환경경영을 실천해 오고 있으며, 이번 수여식에서 다른 제품들로 인증을 추가 획득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식품 이외에 생활용품,

건축자재, 전기전자제품 등 생활 전반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인증을 획득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소비스타일이 본격적으로 로하스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건강·환경지향적인 제품과 서비스에 수여되는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은 1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엄격히 인증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로하스 인증 열대 리스트>

NO	기업 및 단체명	품목수	인증대상
1	서울우유	3	1. 저염치즈 1품 슈레드 피자치즈 2. 가공치즈 2품 체다슬라이스 치즈 어린이 치즈 양념 푸른내 치즈 비에 옥색 칼슘치즈 라면에 치즈 플치즈 지방을 줄여서 더 달콤한 슬라이스 치즈 3. 유기농치즈 3품 유기농 맑은 치즈 유기농 어린이 치즈 유기농 아가 치즈
2	대상	2	1. 맛선생 밀치가쓰오 2. 맛선생 오색사연
3	애경산업	2	1. 아이린 (핵심기술: 원의 향 보존보습구름산력, 실감실용특성내용) 2. 아이린자연초 (과일향, 허브향, 와인향)
4	한비프러그	1	엘리가드 포트
5	에그샵	1	명품영양란
6	이엑스티	1	EXT-Plate(이엑스티파일)
7	세라젬	1	세라젬 무진자파 향균온열매트
8	조인	1	칸베추리얼

| 기술표준 2009.1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국내에서 국제기준 표준사 생산

시멘트 강도시험용 표준사의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이 시멘트 강도시험용 표준사의 개발, 국제 인증 표준물질(CRM)로 등록하게 되어 국내 시멘트업계의 품질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선기를 마련했다.

표준사는 건설산업의 핵심재료인 시멘트의 품질평가지 모래의 불성차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물질이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문진에서 생산한 모래(주분진사)를 표준사로 지정하여 사용해 왔으나 주분진사의 품질기준이 국제기준 ISO 679 Method of testing cement - Determination of strength와 상이하여 국내 시멘트 품질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국내산 시멘트의 품질이 낮게 평가되는 등의 혼란을 가져왔다.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은 한국양회공업협회를 표준사 생산 협력기관으로 하고 국제기준(ISO Guide 34, 35)에 적합한 표준물질 생산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표준사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물질생산기관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내에서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개발된 표준사는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영분

병칭을 따 'KICM 표준사(KICM Standard Sand)'로 명명되었다.

이번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은 표준사를 국제 표준물질등록센터(COMAR)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 동시에 국내 시험분석결과와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적으로는 약 10억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분야 국가표준 개발·관리 수행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 받아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이 건설분야의 표준개발협력기관(COSD)로 지정되어 그간 정부에서 담당했던 국가표준 개발·관리를 담당하게 되었다.

건축재료 분야 국내간사기관으로 활동중인 건자재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건축분야 시험평가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건설(F) 분야 326종의 표준을 개발·관리하게 된 것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급격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표준 개발 및 관리를 이양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기술표준원은 표준관련 이해당사자와의 의견 조율이 가능하고 표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 기술기준 및 표준을 담당하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전문기관을 선정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2년까지 80%의 국가표준을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

“전자재 조달물자 더욱 안전해진다”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 - 조달청 품질관리단 업무협력협약(MOU) 체결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원장 김선호)과 조달청 품질관리단(단장 이성희)은 지난 11월 5일 공공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한 업무협력협약을 체결했다.

MOU 체결에 따라 조달청은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이 품질보증마크인 ‘진마크’를 부여한 업체의 정보(취득·취소·사후관리 등)를 제공받아 조달업체의 제품구매적격심사 및 품질관리 업무에 사용한다.

또한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은 조달청 전문기관

검사제도에 참여해 방음벽·방음판·미끄럼방지도로포장재·콘크리트블록 등 12개 불품에 대한 책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밖에도 조달청에서 2009년 시행예정인 조달업체·수요기관 대상 교육에 한국전자재시험연구원의 인력과 프로그램을 도입해 품질관련 교육을 할 계획이다.

이번 MOU로 양질의 전자재가 공급돼 공공시설물의 내구연한과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조달물자의 품질관리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조달청은 전자크를 부여받은 업체에게 불품구매적격심사시 0.5점, 우수제품선정시 5점의 가점을 주고 있다.

| 기술표준 2009.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관원, '사랑의 나눔성금' 전달



승관원 홍성계 기획관리이사(왼쪽)가 정영구 서초구 양재2동 동지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또한 특별 '부서운영비' 아껴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 5가구를 방문해 물품구입이 가능한 상품권과 케이크를 전달했다.

승관원은 앞으로 인근 지역 내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전사적 후원과 함께 각 부서별 '1팀 1가정 사랑나눔 실천'을 통해 좀더 많은 소외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실천적 사랑나눔'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승관원은 체계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기획관리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KESI 사회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 기술표준 2009.1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원장 이화석)은 12월 24일 연말 성탄절을 맞아 인근 서초구 양재2동 주민센터를 찾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다.

FITI시험연구원

국제 환경 규제에 대한 이해 및 대응 관련 설명회 개최



FITI 시험연구원에서는 미국 강제 규정인 CPSIA(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H.R. 4040)에 대한 내미섬유 무역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해당 규제 사항과 이행 절차에 대한 세미나를 지난 12월 5일 한국표준협회 후원으로 섬유센터에서 부산, 경남 지역 으로는 12월 15일 부산일보 소장당에서 개최 하였다.

지난 8월 14일부터 발효된 『2008 소비제품 안전 개선 법』에 근거해 11월 12일부터 미국 내 제조, 유통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국제 공인 시험기관(KOIAS시험기관)에 해당 품목을 시험의뢰, 성적 전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강제 규정에 대응하고자 약 300여명의 내미섬유무역 및 신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 질의 및 응답을 통하여 매우 높은 관심도를 나타내었다.

이번 세미나는 CPSIA 규제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 절차, 관련 시험법 소개 및 ASTM, AATCC 표준화 활용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급변하는 수출환경에 대한 관련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내미 무역 흑자분 보이는 우리나라 섬유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적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1월 15일 대구경북지방 중소기업청 대강당에서 대구, 경북지역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 기술표준 2009.1

미국 신규 규제법령(HR4040)

실시에 따른 대응 방안 강의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적합성 시험기관으로 지정

우리 연구원은 2008년 11월 11일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실시한 미국 신규규제법령(HR4040) 및 사우디 신설 TBT에 대한 세미나에 적극 참여하여 김승돈 선임연구원이 미국 신규 규제법령(HR4040) 실시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한 강의를 하여 참석자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이는 "2008년 11월 12일부터 제조되는 12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사전 인증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강력한 무역기술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 업체의 신속한 대응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에서 적합성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대비 수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사진 1. 미국 신규 규제법령(HR4040) 실시에 따른 대응 방안 강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실시

-191명 참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크게 기여

우리 연구원은 2008년 11월 17일 연구원 별관 5층 대강당에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 동시행규칙 제20조(안전교육)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사진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장면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일반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실무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은 신규 놀이터는 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기존 놀이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금번 교육에 191명이 참석하여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관리 담당자의 많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8년 8차 REACH EXPO 참가

-합리적, 적극적 REACH 대응을 위한 해설

우리 연구원은 2008년 11월 18(화)인 서울교육문화회관 가야금 B홀에서 열린 2008년 8차 REACH EXPO에 참석하였다.

우리 연구원은 국내 REACH 전문상담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 SGS KOREA 등 8개 업체와 함께 아직 사전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업체 및 사전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사후 대응방안 등에 관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이번 REACH EXPO는 사전등록기한인 12월 1일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참여업체들의 사전등록 대상여부에 대한 문의와, 완제품내비의도적 배출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의 SVHC 후보물질 시험분석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사진3. 2008년 8차 REACH EXPO 부스 현황

업체별 상담에서 우리연구원은

- 1) 사전등록 대상 물질 수출업체에 컨설팅 기관을 통한 내용.
- 2) 사전등록 기한 이후의 사전등록 방법 및 절차
- 3) 사전등록 완료 후 SIEF (물질정보교환포럼) 참여의 중요성
- 4) 신고대상 물질에 대한 리스트업
- 5) 완제품 내 비의도적 배출에 해당하는 제품의 SVHC분석과 거래기업과의 정보 공유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사전등록을 마친 업체는 본등록 및 신고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No Data, No Market 이라는 REACH제도의 원칙을 되새기며 자사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GS홈쇼핑(주)과 업무협약 체결

- 양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관련 산업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 전망

우리 연구원은 2008년 11월 19일 (주)GS홈쇼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양 기관은 제품의 품질향상, 시험분석, 품질인증,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협력하고 상품 안전성 확보, 평가기준연구, 중소기업 지원 분야 등에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GS홈쇼핑의 온라인 커머스(On-Line Commerce) 분야의 품질노하우와 우리연구원의 40여년 전통의 생활용품 시험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GS홈쇼핑의 상품 안전성을 평가하고, 안전기준에 대한 평가 및 기준연구를 통하여 상품 구매 소비자에게 삶의 안

전성을 제공하며, (주)GS홈쇼핑의 협력사 중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양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양 기관의 발전과 관련 산업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소비제품 안전 개선법(CPSIA HR 4040) 설명회 개최(12/09)

- 미국 수출 관련 30여 업체에 큰 도움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PSIA HR 4040) 설명회

우리 연구원은 2008년 12월 09일(화) 서울 본원 별관 5층 대강당에서 미국 수출 어린이제품 사전인증 제도 시행에 따른 2008년 소비제품안전 개선법(CPSIA HR 4040) 설명회를 개최하여 상황에 마쳤다.

이날 완구 및 문구 등 미국 수출 관련 30여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원 김승돈 선임연구원이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개선법(CPSIA HR 4040)”과 관련하여 업체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었다.

김호영 선임연구원이 “General Conformity Certificate(자기적합인증서) and Third Party Reports(제3자 시험기관 성적서)”에 관한 설명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우리 원에서는 국내 최초로 등록된

CPSC(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제3자 시험기관으로서 대미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 기술표준 2009.1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몽고 표준기관(MASM)과 업무협약 체결

-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에서 적합성 시험기관으로 지정



KTR-MASM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좌로부터 5번째 KTR 조기성 원장, 7번째 MASM의 G. Gantumur 회장)

등의 오염 등의 시험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몽고 시험소 설립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해 업무협의를 나누었다.

또한 상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협력과 양 기관의 국제 표준 및 품질 전문가 교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MASM의 G. Gantumur 회장 외 방문단 4명은 업무협약 체결 후 KTR의 인천 청사를 견학하였으며, 12월 9일은 김포 청사를 견학하였다.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은 2008년 12월 8일, 몽고 표준기관(MASM, Mongolian Agency for Standards and Metrology of Mongoli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기술표준 2009.1

MASM의 G. Gantumur 회장과 KTR의 조기성 원장 등 총 1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각 기관 소개에 이어 업무협의를 마친 후, 협약을 체결하였다.

MASM은 알코올, 식품 독성학, 토질, 수질, 공기

KTR, 표준물질 생산기관으로 인정

한국화학시험연구원(KTR, 원장 조기성)은 표준물질 생산기관(건축자재 분석용 백석면 3종, 고무경도 기준편 5종) 제 7호로 신가 인정되었다.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정 제도란, 표준물질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관을 평가하여 국제기준에 적합할 경우 그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KTR은 보다 우수한 시험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측정기기의 교정 및 측정방법의 평가, 재료의 값 부여에 사용하기 위한 표준물질 생산기관 인정을 준비해 왔다.

이번에 생산되는 표준물질은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분석표준물질이며, 그동안 주로 미국 NIST 또는 RTI 연구소 등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전량 선진국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 표준물질을 우리 기술로 개발하고, 인증표준물질 부족으로 인한 R&D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국내 화학 및 고무 제품 생산 업체에 인증표준물질

사용으로 신제품 개발 등에서 공정 안정화에 의한 양질의 시스템 구축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번에 구축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X-선 회절분석용 표준물질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을 자체적으로 생산 공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 실제 사용된 재료와 유사한 메질의 표준물질을 생산 보급함으로써 외국 표준물질과의 차별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인증표준물질로 등록함으로써 석면분석기관의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자재 분석용 백석면 인증표준물질



고무경도 표준물질

| 기술표준 2009.1